

“독창적 아이디어 ... 사업기회 발굴한다”

바이오 기술 및 산업은 세계경제를 선도할 대표적인 핵심 전략산업으로 21세기 첨단산업 중 가장 빠른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특히, 지적 수준이 높은 우리 여건에 적합하여 향후 우리경제를 먹여 살릴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산업의 발전에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바이오 벤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1999년의 벤처 붐에 힘입어 1997년 30여 개 남짓하던 바이오 벤처의 수가 2003년 현재 600여 개 이상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인 측면의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이 국내 바이오 업계의 엄연한 현실이다. 대다수의 신생 바이오 벤처들이 자금 조달,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등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글로벌화 된 시장 환경 하에서 세계적인 제약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 중견 제약기업들의 사정도 낙관적이지 않다. 국내 정부와 민간 전체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비를 모두 합쳐도 미국의 1개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인 렬 상무

전경련

기술 경쟁력 갖춘 뒤 협력 네트워크 구성해야

바이오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적인 신약(Globally Unique Products)을 개발하지 못하는 제약기업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생존까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바이오 벤처들에게 바라는 점도 독창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력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기초기술연구 보다는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응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다. 반면, 독창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기술의 개발에 있어서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특정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벤처기업들이 강점을 가진다.

따라서, 생산기술과 자금,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기업과 독창적인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 벤처들과의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도 대기업들은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을 국내·외에서 찾고 있다. 단, 대기업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벤처 기업들뿐이다. 제약기업, 대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 벤처들도 세계적인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 벤처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학교-연구소-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해 나아갈 때 국내 바이오산업의 윈윈(Win-Win) 전략은 성공할 것이다.